東大新聞

發行人 李瓊根
編輯人 韓相範
主幹 宋赫
編輯部長 高玉錫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8131~9
本社直通@8577

每週火曜日發行

法堂 建立委員會 發足

學處長會議, 建立委會則 통과

李瓊根총장이 취임사에서 다짐한 법당 건립계획은 지난 4일 학처장 회의에서 법당건립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추진단계에 들어갔다. 불교宗立 대학禪院이설 연혁인 본교에는 그간 수련도장인 세웠으나 전 동국인을 치뤄고, 교정에 성상을 박정신에 귀의 할수있는 하게 된것이다. 이총장은 정신을 되살리는 법당—수양도장부터 하겠다고 發願했었다. 법당이없어 이를 추진 취임사에서 「국학불교의 법당건립위원회 위원장 최의원 교수는 「법당건립은 불교의 수련원인 본교에는 그간 수련도장인 대학禪院이설 치뤄고, 교정에 성상을 세웠으나 전 동국인을 박정신에 귀의 할수있는 하게 된것이다. 이총장은 정신을 되살리는 법당—수양도장부터」 우선 마련 하겠다고 發願했었다.

이날 午前10時 總長室에서 열린 學處長會議에서는 本校의 建學理念의 구현을 위하여 전임될 法堂建立委員會則을 통과시켰다. 同會는 法堂建立委員會發足趣旨文에서 「本校는 佛敎精神의 구현에 적극참여하고 교직원, 학생들의 수련도장으로 大學禪院의 殿堂과 교조석가모니의 면모를 모시어 宗祈학나 金東國人의 숙원인 法堂建立의 佛事를 하고자 法堂建立委員會發足趣旨文의 「本校는 佛敎精神의 구현에 적극참여하고 교직원, 학생들의 수련도장으로 大學禪院의 殿堂과 교조석가모니의 면모를 모시어 宗祈학나 金東國人의 숙원인 法堂建立의 佛事를 하고자 法堂建立委員會發足趣旨文의 「本校는 佛敎精神의 구현에 적극참여하고 교직원, 학생들의 수련도장으로 大學禪院의 殿堂과 교조석가모니의 면모를 모시어 宗祈학나 金東國人의 숙원인 法堂建立의 佛事를 하고자 法堂建立委員會發足趣旨文에서

社說

知性과 浪漫의 調和

大學生活의 意味는 知性과 낭만의 화합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大學生들도 젊음과 知性과 낭만을스스로의 專有物처럼 구가한다。社會的으로도 이러한 대학시대의 멋을 예찬하는 것이 보통이다。대학생활은 젊음의 屬性으로써 知的意欲이 가장 왕성한 때이다。한편으로는 가장 낭만적인 꿈과 정열을 불태우는 시절이도하다。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학시절은 너무 욕망하는 바가 많으서 방황을 하고 오히려 시간의 모자람에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의욕에 충만한 학생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면 할 수록 시간의不足과, 경제적인 궁색을 自覺하게되는것 또한 常情이라 할것이다。그러나 어떠한 事態下에서도 의욕이없는 者의 대학생활은 무미건조할뿐이다。그것은 젊음의 特徵인 무한한 可能性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는 까닭이다。

여기에서 의욕적인 대학생활을두고 젊음을 의미하느냐 하는 反問을 가져 봅직하다。그것은 世俗的이거나 現實的인 實利를 추구하는 따위는 아니다。未來指向的인 젊음의 속성은 實利主義的인 것과는 전혀 별개의 次元에서 이해야 하는 까닭이다。이를 우리는 비현실적 또는 理想追求의 열정적인 覇氣로라 지칭할 수 있다。낭만적인 의욕과 꿈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浪漫」이라는名詞는藝術上의한 流派인 로맨티시즘에서 온것이지만 대학생활의 낭만을 이러한 觀點으로부터 추적할 수는 없다。實現性이 적고, 매우 정서적이며 이상적인 상태라는 「낭만」의 辭典的 정리만으로는 더욱 모호해진다。대학생에 있어서의 낭만은 知性的으로 換骨奪胎가 된 상황에서 파악해야 하는 까닭이다。이럴 뜻에서 대학생활을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낭만이 知性的 調和를 잃어버리고 無分別하게 작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이다。그것은 대체로 달콤하고 感性 한 한편에 밖에없다。이러한 구조를통하여 「論語」가 어떠한 性格의 고전인가는 다음 장 직접 이 간다。

그러나 속담에 「論語百讀에 論語無識」이란 말이 있는데, 「論語」를 읽되, 현대적 안목으로 읽어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論語」에만 한하는 뜻이며 이는 古典讀書法을 아닐 것이다。註釋書나 解說書나 研究書만 해도 동서양 것을 합쳐 3천여종이나 되는 형편이니 참 해설하고도 현대적 각각에 찬 해설서를 통하여 원전에 직접 대하고 그들과 對話함이 옳을 것이다。나더러 전편을 통하여 꼭 한마디, 그리고 孔子상의 핵심을 건드릴분 아니라 孔子의 인간미를 섭분 맛보게 하고 또 논의 우리들로하여금 어떠한 성인에게서보다도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단한마디를 뽑아보란다면 『논인들이 안심할수 있도록 친구들이 신용할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좋아서 따를수 있도록 하고만싶다』(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公冶長·25)라는 공자의 말언이다。人間공자는 그의 愛弟子 顏淵의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센티멘탈리스트」며 시와 음악을 좋아할분이나라 스스로가 연주하는 「로맨티스트」며, 또 이들에게 詩공부를 열심히 할것을 권유하는 慈父이기도 하며 어린이를 「울어서도 쪽지못할 위인」이라고까지 나무라는激情家이기도하다。이러한 그들 도 덕군자로만 봤을 것되이 신격화 시킨 「한들」은 민속의식을 상징한 주체성없는 임부 극털한 인사들의 줄수있도록 다소 덤지를 덮어고 문과관은 못되고 생각한다。나는 이가을에 「論語」百讀에 인간孔子를 더들고 더없는 희열에 잠긴다。

鄭璡 <佛敎大哲學科敎授>

仁論·君子論·反俗物論

論語百讀에 喜悅느껴

古典은 原典을 接해야

신간서中에서 최근에읽은 것을들어달라는 이야기인데 먹힌 노릇이다。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씩 누가 보아도, 新刊書가 필수는없기 때문이다。

冊中에는 새것이라고 해도 來日과 모레면 벌써 낡아빠지는수가 있는가 하면 百年前, 千年前 것이라도 날로 새로와만 지는것도 있다。그러한 것들을 古典이라고 하는데 恰以 古酒처럼 낡아질수록 새로와지고, 삭으면 삭을수록 맛이 돌고 묵히면 묵힐수록 香氣이 짙어간다。그럼데 千年前 것도 아니고 무려 2千5百年前의 原始文字와 根本思想과 純粹感情과 太初의 이상과 行動의 기록중의 우두머리인 論語를 나오고 또 요즘도 또 지금도 읽고 있다。그래서 論語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는 나의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서의 訣別을 爲한 讀書大行進의 10개年計劃中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던 것임을 밝혀둔다。「바우스트」와 「新約全書」의 〈天과 地〉를 다 읽기란 남사였이었고 그 뒤를 잇는 론 「단테」의 「神曲」(Divina Commedia)과 「괴테」의 「우리 알제스」(Glasperlenspiel-1943)와 「키프키」의 「城」(Das schloss-1926) 등 세작가는 「부」힘이 들어 「時」退治의 難을 免치 못한것이 어언 4, 5年이다。하지만 論語로부터 解放이 이루어지는 날, 권토중래의 氣勢로再攻略의 機會를 놓지않을 생각이다。冊의 잦어지는 通讀에 있기 때문이다。〈天〉만 읽다가 말고 〈地〉를 읽지않는 수가 許多한데 讀書法으로는 下賣에屬한다。「論語」는 20篇에 521章의語錄이다。孔子와 그 門徒들과의對話와 門徒 개인의 발언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플라톤」의 저작을 통칭 對話篇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 하면 「佛經」도 「新約全書」도 「論語」도 스승과 그 제자와의 대화를 수록한 對話體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면 의미에서 논어는 다른 경우와 같이 孔門一派의 교육적 記錄이라고도 할 수 있다。그스승과의 언행차가 10세밖에 안되는 子路로부터 연령차가 50세나 되는 濟臺薇明에 이르기까지의三千의 門徒가 있었다。「論語」전편에 걸쳐 仁이 106回, 君子가 98회, 道가 76회, 義가 73회, 小人이 24회, 君子와 小人이 24회등 나오는 것으로 보아 「論語」는 仁論이며 君子論이며 小人反對論은 反俗物論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天이 38회나 나오는데 對하여 地는 단 3회뿐이나 모두가 形而上學的 意味로는 쓰지 않고 儒는 단 한군데 밖에없다。이러한 구조를통하여 「論語」가 어떠한 性格의 고전인가는 다음 장 직접 이 간다。

「論語」는 「論語百讀에 論語無識」이란 말이 있는데, 「論語」를 읽되, 현대적 안목으로 읽어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論語」에만 한하는 뜻이며 이는 古典讀書法을 아닐 것이다。註釋書나 解說書나 研究書만 해도 동서양 것을 합쳐 3천여종이나 되는 형편이니 참 해설하고도 현대적 각각에 찬 해설서를 통하여 원전에 직접 대하고 그들과 對話함이 옳을 것이다。나더러 전편을 통하여 꼭 한마디, 그리고 孔子상의 핵심을 건드릴분 아니라 孔子의 인간미를 섭분 맛보게 하고 또 논의 우리들로하여금 어떠한 성인에게서보다도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단한마디를 뽑아보란다면 『논인들이 안심할수 있도록 친구들이 신용할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좋아서 따를수 있도록 하고만싶다』(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公冶長·25)라는 공자의 말언이다。人間공자는 그의 愛弟子 顏淵의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센티멘탈리스트」며 시와 음악을 좋아할분이나라 스스로가 연주하는 「로맨티스트」며, 또 이들에게 詩공부를 열심히 할것을 권유하는 慈父이기도 하며 어린이를 「울어서도 쪽지못할 위인」이라고까지 나무라는激情家이기도하다。이러한 그들 도덕군자로만 봤을 것되이 신격화 시킨 「한들」은 민속의식을 상징한 주체성없는 임부 극털한 인사들의 줄수있도록 다소 덤지를 덮어고 문과관은 못되고 생각한다。나는 이가을에 「論語」百讀에 인간孔子를 더들고 더없는 희열에 잠긴다。

어문정책의 일관성

제 5백28돌 한글날을 맞아

김성배 <문박·사대국교과교주·한글학회이사>

이러한 문화적 고경속에서 헤매고 있는 백성들의 환경을 세밀히서는 진즉 살피시와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보다 훌륭한 국문자가 있다는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하셨다。그 높고 깊은 슬기로움과 그 굳건한 영단력과 위대한 문적에 대하여 늦이 평가하는 등시에 경건히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거룩한 뜻을 길이 계승할것을 맹세하고 다짐한다。

한글은 한자와 한문, 그리고 모화사대주의(慕華事大主義) 사상에 젖은 일부 귀족과 백성이 (연산군, 최만리…등) 다소 푸대접을 받아 왔다。임제36년간 그들의 한국문화 말살정책에 의해 된지리를 맞아 오다가 1945년8월 조국광복과 아울러 우리말 우리글을 다시 찾아 쓰게되었으니 이 얼마 기쁘고 감격스럽지 아니하랴。

그러나 광복후 근30년간 우리 「한들」은 민족의식을 상징한 주체성없는 임부 극털한 인사들의 줄수있도록 다소 덤지를 덮어고 문과관은 못되고 생각한다。나는 이가을에 「論語」百讀에 인간孔子를 더들고 더없는 희열에 잠긴다。

「A·하우저」著、白樂晴·廉武雄譯

「文學과 藝術의 社會史」

이번에 「創作과 批評」社에서 「하우저」著 「文學과 藝術의 社會史」中 「現代篇」을 내놓았다。原著者의原題名은 「Arnold Hauser'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이다。

이 책의 著者 「아놀드·하우저」는 우리들에게 별로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그는 1892년 「헝가리」태생으로 「부다페스트」「비엔나」「베를린」「뮌헨」의 각 대학에서 문학과 철학 및 미술사를 전부하여서 美術史家인 「박스·드보르작」과 「필톨린」철학자인 「게오르그·짐멜」과 「베르그송」「구스타프·만」등의 교수를 지냈다。

「A·하우저」는 「文學史家 「쿠스마브·할슬」등 여러 스승의영향을 받았다。그리고 이 태리에서 古典美術과 「이태리미술을 연구했고, 다시 1921년에는 「베를린」대학에서 「홀바르트」와 「트틀쉬」밑에서 經濟學과 社會學을 연구한碩學이다。

하우저의 勞作인, 이 「文學과 藝術의 社會史」는 한마디로 말해서 社會史的 철저한 社會史的 관점에서 총정리한 名著라고 할 수 있다。그 巷大한 분량은 놀라운 凝近法으로 유럽의 예술사를 透視하면서 그 예술사를 현명하게 정체를 현명하게 助因과 助明한 著者의 該博한 知識에는 스토마스·만」같은 이도 感嘆하고 있다。「著者의 博學의 유럽의 예술사를 獨步的으로 되어 있다。

그는 藝術을 社會의產物로 봄과 동시에 사회를 또 역사적으로 규정하고 변화하는 현상으로 파악했다。

藝術作品을 포함한 人間의 모든 精神活動이 근본적으로 社會的인 信念과 그러면서도 예술이라는 人間行爲가 지닌 獨自性과 복잡성에대한 존중심을 견지하고 있다는데 이 저자의 큰 美德이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문학 및 예술상에서 절실한 관심거리로 다루지고 있는 문제들, 예컨대 〈미얼리즘〉의 문제라든가 현대예술과 〈데카당스〉의 문제가 현대예술의 본질에 속한다는 일부 현대예술가들의 주장을 배격하고 오히려 그 사회적 근거를 照明함으로써 건강한 예술에 대한 요구를일발침해주고있다。

아울러 이 책을 방대하고 복잡한 思考를 이해하고 사회에 대한 洞察을 들춰 담고있는 이 한권의 책을 읽으면서 뿌듯한 감명을 받게 될 것이다。또한 우리 文學化理解에 研究와 西洋文學 심련 하나의 길잡이가되어 주리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知識의 供給源으로서만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에게 현실적 판심사를 點檢하고 해명하는 한 契機로서, 누구든지 꼭 한번 읽어 볼만한 良書라고 생각한다。

〈創作과 批評社刊〉

□朴珍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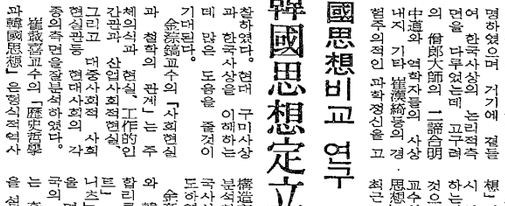
社會史的觀點서 文化정리

유럽의 藝術史 투시

韓國哲學會 編著

「哲學思想의 韓國的照明」

한국철학회편저의 신간 「哲學思想의 韓國的照明」이 一志社발행으로 출간되었다。「韓國思想의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본저서는 한국에 지금까지 들어온 동서의 모든 철학사상을 비판, 정리하고 한국사상을 시대별로 구성되어있다。제1장은 과학철학, 예술철학, 교육철학, 종교철학, 역사철학 등 네가지 서구 사상과 한국 사상을 비교 고찰하였고, 제2장은 「實存主義」 「프래그마티즘」 「構造主義」 「現象學」 「合理主義」 「經驗主義」 「歷史主義」등 현실관등 현대사회의 사회주의의 각 면을 분석하였고 崔載喜교수의 「歷史哲學」과 「韓國思想」은 원숙사적 역사의 유복, 崔載喜교수의 「歷史哲學」은 「哲學」과 「韓國思想」은 원숙사적 역사철학등을 설명하고 민족적 가치관과 韓國思想을 설명해주고 있다。薛光熙교수의 「實存主義」와 安秉煜교수의 「프래그마티즘의 韓國思想」에 대한 응용은 역사의 흐름과 불편을 잘고 전디어 왔던가? 10만자에 가까운 어렵고 까다로운 중국의 한문자(漢文字)를 빌려옴으로해서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과 의사를 표현에 그 얼마나 많은 고역을 당했을까? 평생을 두고 정력과 시력과 시간을 소모하고도 자유롭게 펴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한스러운 일이냐。



무궤도한 정책 주체성 잃어

문화민족의긍지、한글전용에

김 우 진 편저 가격 900원

※A. B. C부터 중급 까지

방송시간 아침 7.00~7.15
재 방 송 저녁11.45~12.00
개 강 1974년10월7일

판매처 종로서적 센터 2층
⑭1012. 1016. 1017
서울종로2가84의9
중앙사서함 687호

KBS 600KHZ 제2방송
불어 방송교재
LE FRANCAIS CHEZ VOUS

광신 안경점
신예용안과1층·3·1빌딩 광교中間
서울 종로구 관철동 43-9 TEL. 74-5559

허약·비만·건강에자신없는분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대한극장옆 정금빌딩4층)
동아 열 육치미 청 관

뺏지·마-크·트로피·상패
페난트·교기·메달·조각
도안·기타 각종 행사
(본교생에게 특별 우대)
豐成工藝公司
대표 이 중 엽
서울 중구 을지로3가315-2
(수도빌딩 301호)
㉙ 1896

名敎授 名講義
本學院은 政府代行 海外 여행자에 對한 日本語 語學能力 檢定시험 위촉 公認 기관임
확인
—外國語 專門—
英語會話 AFKN청취반
日本語 ◎프린트교재 배부
中國語 ◎1個月만에완전 청취可
西班牙語 獨文小說特講
獨·佛語 ◎敎材: 「청춘은 아름다워라」(헤르만헷세著)
◎강사: 崔昌成 교수
DIGEST·TIME
◎英文독해력과 어휘 整理를 爲한 大學生 필수 과정班
◎시간: 새벽반·낮반·저녁반
위치: 종로2가 네거리 삼화고속 건너편
전화 ㉕8115·8116 ㉕8117
개강 매월 1일

海軍行政兵 入隊 희망자 모집
74년도 10월1일(兵) 入隊 희망자모집 자격 만17세~23세 건강한남자 소정교육후 행정병으로임대 복무연한은 일반병과같음
(계룡대상건너편) ㉙5252·5020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20~4 海軍行政兵指定學院·高麗打字學院

高麗經理珠算學院
①會計士 準備班 ②稅務士 準備班 ③各級부기 검정반 ④3급 부기검정반 ⑤경리실무반 ⑥주산반
高麗打字秘書學院
①교양반 ②취직반 ③비서반
高麗書藝文化學院
①펜글씨반 ②붓글씨반 ③차트반

SOFT LENS
easy on the eye
美國 B.L.製
韓國 H.I.製
서울: 한일콘택트렌즈 Lab.
75-1518·74-8563
부산: 중앙콘택트렌즈 Lab.
22-5804·42-7973

金惠純 遺詩集 (1972년도 東大哲學科卒)
經濟學 新論
◇東大新聞社 同人會發行◇
□不世出의 同門天才 故金惠純燮 의 靈前에 □金惠純燮… 당신이 나까지도 접어두어버리고 牛前에 한번도 찾지않음은 나도무척 섭섭키는 섭섭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나는 네 아직도 남아있는 視力으로 당신이 우리 詩의 天才임을 認證합니다.
—<未堂 徐廷柱敎授의 序辭에서>—
東西文化院 刊 값 5백원
購讀方法 東大新聞社 同人會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26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內 ☎ ㉗8577 (直) 구내257
※本書에對한 問議는 ㉗8577 (東大新聞社)로!
販賣處·東國大學校 構內書店

大學閑話

삶의 意義

朱宗桓 <慶林大敎授·經博>

나의 學窓時節에는 학생들간에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되어 있었으며 「칸트」의 純粹理性批判이나 實踐理性批判등 꽤 어려운 철학서적과 씨름하는 학생들도 적지않았다。그것은 비단 人文社會科學系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경향이 아니고 自然科學系를 지망하는 學生들에게서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流行病이었다。

그러한 哲學的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제각기 삶의 意義에 대한 자기 부림쳤다。그런 과정에서 이윤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못한 몇몇 學生들은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학생들도있었다。하던 심한 價値喪失病에 걸려 이른바 「데카단이즘」-(그때 그때 닥치는대로 산다는 主義)속으로 빠져헤매는 학생들도 있었는가 하면 哲學的 苦悶끝에 自殺하는 학생이 속출하는 한 때도 있었다。

學問의 기초는 哲學에 있다고 볼때 이와같은 學生들 사이의 철학적 분위기는 학문의 발전과 人格形成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의 學窓時節에는 학생들간에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되어 있었으며 「칸트」의 純粹理性批判이나 實踐理性批判등 꽤 어려운 철학서적과 씨름하는 학생들도 적지않았다。그것은 비단 人文社會科學系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경향이 아니고 自然科學系를 지망하는 學生들에게서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流行病이었다。

그러한 哲學的 問題에 대들은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쳤다。그런 과정에서 이윤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못한 몇몇 學生들은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학생들도있었다。하던 심한 價値喪失病에 걸려 이른바 「데카단이즘」-(그때 그때 닥치는대로 산다는 主義)속으로 빠져헤매는 학생들도 있었는가 하면 哲學的 苦悶끝에 自殺하는 학생이 속출하는한 때도 있었다。

學問의 기초는 哲學에 있다고 볼때 이와같은 學生들 사이의 철학적 분위기는 학문의 발전과 人格形成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학창을 떠나 제각기 전문분야를 갖게되면 자기 전문분야에 쫓기어 여간해서 哲學的 心醉할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갖기 어렵게 된다。역시 학창 시절이야말로 人生의 黃金期였다는 것을50줄에 접어드는 이때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아마도 학생여러분도 나만한 나이가 되었을때 그와똑같은 느낌을 가질 것은틀림없는 일이다。바야흐로 變革·可親의 轉換期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민족문화 앞에 놓인 과제는 너무나 큰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일부 인사들은 한글전용을 한자폐지, 한문 폐지인양 착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이다。한자 한문의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전문적으로 한문교육을 시키라는 것이다。그러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전문분야 교과서에 한자를 섞지않은 순수한 〈한문과〉를 개설하여 한문을 가르치고 있다。한문과를 신설하여 교육시키고 있는 터에 문이 교과서에 한자를 (괄호 속에) 붙여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주어야 할 이유는없다。교전을밟을 번역함에는 중·고등학교에서 6년간 한문을 배우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공으로 한문을 6~7년 백수년 도합 12~13년이 되니 그것으로충분하다고 말한다。

중국의 노신(魯迅)은 「ABC의 한문자가 없어지지않으면 중국이 망한다」라고 갈파한 바 있었다。한자문화의 고향에서 꾸지 한 분자의 폐지론이나 개혁이 주장되어 왔었다。되새겨볼만한 언(名言)이 아닐수 없다。

우리들이 있음이 얼마나 떳떳지 한 자랑인가。이를 떠올 빛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문교부의 국어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우리말 우리글을 아끼고 소중히여기며 한글문화, 민족문화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한글전용의 길로 용감하게 전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韓國思想비교 연구

東西哲學과 韓國思想 定立、示圖

最初의 韓國思想

위한 철학적이론, 제2장은 外國哲學思想의 한국사상에대한 응용으로 편제 과 한국사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것이 기대된다。

金宗鎬교수의 「사회현실과 철학의 관계」는 주체의식과 현실사회 간관과 산업사회 진단 고찰하였고, 제3장은 비교 그리고 대중사회현상 현실관등 현대사회의 사회주의의 각 면을 분석하였다。

崔載喜교수의 「歷史哲學의 한국사상에 대한 응용과 영향에 관하여」는 한마디로 말해서 社會史的 관점에서 총정리한 名著라고 할 수 있다。그 巷大한 분량은 놀라운 凝近法으로 유럽의 예술사를 透視하면서 그 예술사를 현명하게 정체를 현명하게 助因과 助明한 著者의 該博한 知識에는 스토마스·만」같은 이도 感嘆하고 있다。「著者의 博學의 유럽의 예술사를 獨步的으로 되어 있다。

그는 藝術을 社會의產物로 봄과 동시에 사회를 또 역사적으로 규정하고 변화하는 현상으로 파악했다。

藝術作品을 포함한 人間의 모든 精神活動이 근본적으로 社會的인 信念과 그러면서도 예술이라는 人間行爲가 지닌 獨自性과 복잡성에대한 존중심을 견지하고 있다는데 이 저자의 큰 美德이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문학 및 예술상에서 절실한 관심거리로 다루지고 있는 문제들, 예컨대 〈미얼리즘〉의 문제라든가 현대예술과 〈데카당스〉의 문제가 현대예술의 본질에 속한다는 일부 현대예술가들의 주장을 배격하고 오히려 그 사회적 근거를 照明함으로써 건강한 예술에 대한 요구를일발침해주고있다。

아울러 이 책을 방대하고 복잡한 思考를 이해하고 사회에 대한 洞察을 들춰 담고있는 이 한권의 책을 읽으면서 뿌듯한 감명을 받게 될 것이다。또한 우리 文學化理解에 研究와 西洋文學 심련 하나의 길잡이가되어 주리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知識의 供給源으로서만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에게 현실적 판심사를 點檢하고 해명하는 한 契機로서, 누구든지 꼭 한번 읽어 볼만한 良書라고 생각한다。

〈創作과 批評社刊〉

□朱赫

幻仙窟의 神秘

洞窟探險 報告記

◇……本校 동굴탐험연구부는 지난 7월16……◇
◇……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江原道 삼척군……◇
◇……도계읍 대이리에서 74년도夏季洞窟探險을 실……◇
◇……시했다. 석회암동굴로 알려진 幻仙窟은 태백산……◇
◇……맥의 德項山에 자리잡고 있는 東洋最大의 동굴……◇
◇……. 동굴탐험부원들은 지난 70年度부터 8차례……◇
◇……에 걸쳐 이 前人未踏의 동굴에 도전했다. ……◇
◇……다음은 幻仙窟의 탐험을 성공적으로 마……◇
◇……치고 돌아온報告記이다. <편집자註>……◇

崔 宇 勝 <工大·電子工學科>

◇本校探險隊名單

한상근	(林·4)	김영선 (農生·2)
이재우	(英·4)	최우승 (電子·2)
민방식	(林·3)	박 건 (農·2)
김승배	(電機·3)	최용근 (林·1)
정안석	(食工·3)	백연부 (經·1)
김무영	(電機·3)	윤명철 (史·1)
박영수	(電機·2)	심상든 (工敎·1)

幻仙窟은 동양최대의 석회암동굴로서 충인장길이가 8·2㎞나 되며 평균 폭을 19㎞, 높이 15㎞, 평균 높이가 15㎞, 가장 높은 곳은 25㎞이고 평균 폭은 10㎞가 넘는 굴로서 총길이가 8·2㎞나 되는 큰 동굴이다. 굴속에는 林踏外 수백마리의 박쥐가 서식하고 있으며 「林踏外」 저택은 「中央廣場」이라고 불리우는 넓이 30㎡이고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3천5백방울이나 되는 큰 폭포를 이루고 있으며 보이는 물은 바위틈 사이로 흘러 내려 「水晶宮」이라는 연못을 이루고 있다. 「水晶宮」의 물은 맑고 깊어 10㎞가량 되는 큰 폭포를 이루고 있다. 「中央廣場」에서 「水晶宮」까지는 3개가 있으며 「水晶宮」에서 「林踏外」 저택까지는 3개가 있다. 「林踏外」 저택은 높이 15㎞, 평균 폭 19㎞, 길이 25㎞의 넓은 굴로서 천정에는 수백마리의 박쥐가 서식하고 있으며 바닥은 모래와 자갈로 되어 있다. 「林踏外」 저택에는 「林踏外」 저택의 「에어·보트」 항공수송기가 있으며 「林踏外」 저택에서

西洋 哲學上의 이데아의 變化

B·러셀의 「西洋의 智慧」를 읽고

李 閏 榮

○…「버트란트·A·W·러
○…셀은 英國의 哲學者,
○…數學者, 社會評論家로
○…서1872년 北部 영국의
○…「몬테벡크」의 子爵
○…집안에서 태어났다.
○…1차대전중에는 反戰
○…운동으로 대학강사직
○…을 사임했었으며 그
○…후 저술에 힘써,「화
○…이트헤드」와 공동으
○…로 「수학원리」를 냈
○…으며, 철학上 新實在
○…論者로서 「철학의 諸
○…문제」를 썼다. 또한
○…사회개조의 원리로서
○…무정부주의 경향에서
○…보수적 사상을 가지
○…기에 이르렀다. 反戰
○…주의자로서 1950
○…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편집자·註>

Bertrand Russel의 「西洋의智慧」 μ「Thales로부터 「뽀트겐슈타인」에 이르는 西洋哲學을 幾何學的인 隱除法에 의하여 知識을 전달하는 圖式으로 읽기는 하나의 企圖를 했다. 또한 哲學的 論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批評的 講論의 기준과 結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이 作品에서 東洋과 西洋의 이데아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思考하며 읽어려웠다.

「러셀」은 現代까지 철학의 흐름을 소크라테스 以前, 아테네, 헬레니즘, 初期基督敎, 스콜라哲學, 現代철학의 物興, 英國經驗論, 계몽사상과 浪漫主義, 功利說과 그以後, 現代哲學으로 나타내고 있다. 모든 思考의 대상은 自然이었다. 「탈레스」의 世界가 물로 이루어졌다는 見解, 「아낙시만드로스」의 宇宙論的 理論의 批判, 「아낙시메네스」의 空氣分子說들은 익히 아는 사실이나 이시대 希臘哲學者중에서 연구하고 싶은 人物은 「제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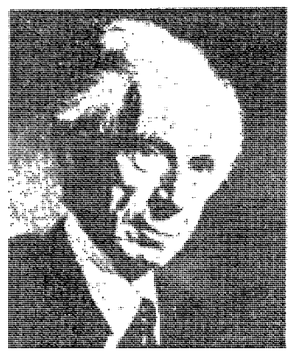
그의 論法은 主로 「피타고라스」學派의 最小完金數의 槪念에 關한 攻擊으로 읽어진다. 眞空에 反對하고 運動의 可能性에 反對하는 論法에서 「제논」은 그것이 어떤 크기를 가져야만 했다. 크기가진 한 可分性은 部分의 數로서 無限하다는 것을 證明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部分의 數는 最小完金數를 必要로 한다. 그리므로 그럼 것들의 어떤和는 크기도 없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이아닌가?」라고 쓴 그의 마음을 짐작할수있다.

「소크라테스」의 Idea 理論에서 洞窟에 대한 直喩는 현대인의 物質萬能 精神世界의 終末을 보는 느낌이다. 哲學없이 사는 사람들을 洞窟에 갇힌 罪因으로 묘사했고 그들은 동굴밖에는 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불수가 있는 物體의 그림자를 實際的인 物體로 생각한 바 없다. 조그마한 생각과 行動에도 哲學이 들어있어야 滿足한 삶을 사르트르교 하지만 그들 보상권에 따라 敎會의 權威가 原則的으로 붕괴됨 한 것으로 幾行하며 쇠미해져 民族國家들의 利用物로 轉落했다.

초기에는 민족적 결점으로 잔주되면 적상교 절점적으로 개인의 경할 으로 여겨지게되었고 죄를 범할수 있는 사람은 기독인 개개인이었다. 스콜라哲學時代로 접어들면 철학이 밀접하게교회와 연결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可知的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체의 본질은 인간에게는 알할것도 없고 神자신에게도 不可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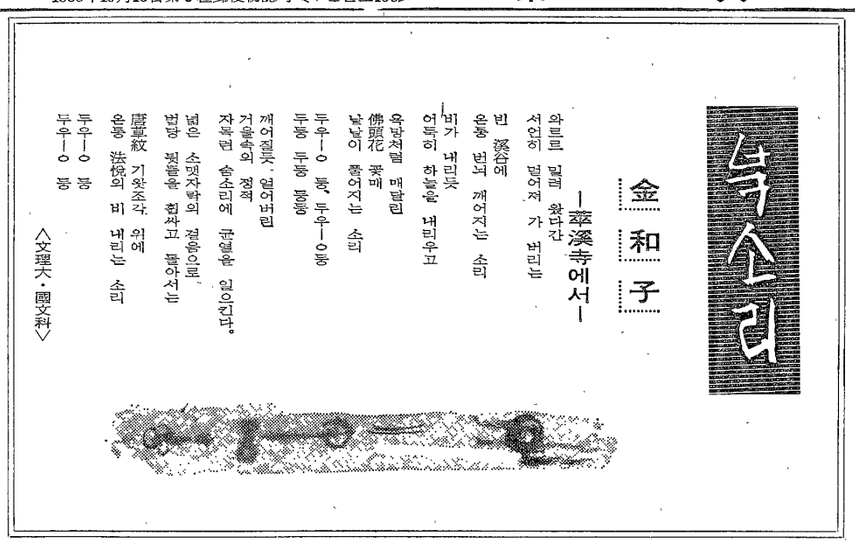
현대철학의 勃興은 문예부흥이다. 신에대한 결 신들린 교황세력이 너무 강력해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동시에 Idea의 변화를 조리있게 그리고 역사에 정확히 입각해서 철학자의 사상을 연결한 체계가 이루어졌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조금 안것장담이다. 다시 말해서 哲學的 見解가 成長하여온 背景을 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 자신이 東洋人으로서 몇가지 가장중요한 관점에서 서양의 哲學的 전통과 東洋의 理性的 思維와 어떻게 다른가를 이책을 통해 배우고 있다는 점이다.

<農林大學·農學科>



善과 知識·희랍 思想의 특징

서양철학을 기하학적 은유로 전달



<文理大·國文科>

隨筆

水災의연금

馬基永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땀과 나머지 1%의 靈感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족한 1%의 영감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의 인류의 업적이 웅변으로 말해주듯 무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마땅히 노력의 양이 열매가 맺어 그일의 成敗는 결정되는것이다.

한동안우리대학가에 「수재학의연금모금함」이나타나 극성을 떨더니 오즈음에는 방법을 달리하여 「1日찻집」이라는 티켓이 범람하고 있다. 참은 대학생들이 지난번 막대한 수해를 재민들을 돕기 위해 투찻집을 경영하여 거기 재서 나오는 수익금을 수재의연금에 기탁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물론 각대학 스스로 영광도 받았겠지만 반수재민들 돕기 위해 同胞愛를 발휘하자는 그 취지나 좋다. 무조건 모금활동을 벌이는 것은 하여 최소한의 멋가도 지켜보고 싶다. 일조를 보고 구호금품을 요구하면 방법에서 탈피하여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막대한 建設的인 사업에 배가 고파 남보다 일찍 국민이 아직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나라는 우선 배가 스스로 災害를 방지하고 自立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 이러한 극실한 재해를 당하였다는 것은 依他心이 아닐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은 安易한 生活의 결과이다. 이번 제5호에서는 李崇寧씨의 「조난과 모랄」 金義好(本校國文科) 교수의 「医作用으로서의 조난」 등의 조난사를 통한 시대적 특성과 樣相, 조난대책을 학술적으로 다룬 遭難論을 특집으로 엮고 있다.

그의 山岳部會員들의 지난 73년도 1년간의 희양산,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등의 산행보고를 보와 기사를 통해 게재하는 한편 지난 58년도부터 69년도까지의 설악산, 한라산등의 산행기록 오지를 실으었다. 특히 이번 제5호에는 山岳活動의 안전성을 높이는 의아실을 갖는 것이 아닐까?

現代政治理論

<李炳吉 等 譯, 汎韓書籍刊, 295P>

Almond의정치이론과 정치학, Pool의 민중과 정치체, Eulau의 代表理論의 發展, Simon의 행정이론과 행정제도의 변등, Eckstein의 정치학과 공공정책, Dahl의 정치체계의 평가, Pye의 신생국과 세계, Shils의 프라이버시와 권력등을 번역한 도서이다.

英語音聲學

<梁東暉著, 汎韓書籍刊, 354P>

6章으로 나뉘어 저술되어 있는데, 1章은 總論으로 언어와 음성, 음성학, 발성기관, 音의 分類등이 있고 2章부터는 母音, 子音, 連音, 强勢, 音調등으로 나누어 저술하고 있다. <中央도서관 제공>

新刊안내

東國山岳會에서는 「東國山岳」제5호를 발간하였다.

「東國山岳」은 그간 山岳專門誌의 출판이 중단되어 조한 국내 山岳界에 年刊山岳學術誌로서 校內에서는 물론 國內 산악인에게 주목을 받고, 등산文化향상에 발전을 꾀하였다.

이번 제5호에서는 李崇寧씨의 「조난과 모랄」 孫慶錫씨의 「本質的문제와 安全登山」 金義好(本校國文科) 교수의 「医作用으로서의 조난」 등의 조난사를 통한 시대적 특성과 樣相, 조난대책을 학술적으로 다룬 遭難論을 특집으로 엮고 있다.

刊發 東國山岳 五號
特輯 遭難論을 으로

2月이 오기前에

▼數年前의일 금치 못한다.

이었다. 湖南 地方에 가물이 들어 2월이 오기전에 극심하여 新雨는 슬프고도 아픈 祭가 한창이었다. 그러나 이번 가뭄은 지난 해와 달리 지난 겨울 눈도 없고 비도 없어 地方민가에서는 모두 걱정이 태산 같다. 이것은 물론 지난 겨울 洪水의 피해가 아우 農民들의 아우성 지만 점점 심각해 지고 있어 안된다는 사고방식 이었을까?

내년2월부터는 醫師 專門 士學位 授與制度가 폐지되고 박사학위취득을 해서는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해야하는 본 業體의 작된다. 金融業體의 入社試驗으로 금년의 入社試驗은 거의 큰난게되었다. 無休로 實施된 特 講受講에다 卒業班 生들에게는 暗黑的 노력이 있었던 卒業班들의 가슴을 눌러 착잡하기 그지없다. 마침 하루 한 번 겨울 스산한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이 하지만 前期도 아직 1학기를 겨울캠퍼스에서 3백여명씩이나 배출은 아닐것이다. 이때만 추석은 간다면 더 학술업적의 稀少價値가 서 있을것 이다. 그는 후기졸업식에서 박사학위의 논문도 제출하는 박사의 논문은 최고의권위를 발하는 학위임에 틀림이없다. 하지만 아직 후기졸업식에서 박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는 한 번 해보고 싶어.』

▼박사학위는 東西古今을통해 가장 영예롭고도 최고의권위를 발하는 학위임에 틀림이없다. 하지만 아직 후기졸업식에서 박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는 한 번 해보고 싶어.』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여 그의 미래적 民族國家들의 利用物로 轉落했다.

초기에는 민족적 결점으로 잔주되면 적상교 절점적으로 개인의 경할 으로 여겨지게되었고 죄를 범할수 있는 사람은 기독인 개개인이었다. 스콜라哲學時代로 접어들면 철학이 밀접하게교회와 연결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可知的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체의 본질은 인간에게는 알할것도 없고 神자신에게도 不可知한 것이다.

현대철학의 勃興은 문예부흥이다. 신에대한 결 신들린 교황세력이 너무 강력해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동시에 Idea의 변화를 조리있게 그리고 역사에 정확히 입각해서 철학자의 사상을 연결한 체계가 이루어졌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조금 안것장담이다. 다시 말해서 哲學的 見解가 成長하여온 背景을 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 자신이 東洋人으로서 몇가지 가장중요한 관점에서 서양의 哲學的 전통과 東洋의 理性的 思維와 어떻게 다른가를 이책을 통해 배우고 있다는 점이다.

<農林大學·農學科>

메아리

▼오는 13일부터 各金融業體의 入社試驗이 시작된다. 入社試驗은 거의 큰난게되었다. 無休로 實施된 特 講受講에다 卒業班 生들에게는 暗黑的 노력이 있었던 卒業班들의 가슴을 눌러 착잡하기 그지없다. 마침 하루 한 번 겨울 스산한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이 하지만 前期도 아직 1학기를 겨울캠퍼스에서 3백여명씩이나 배출은 아닐것이다. 이때만 추석은 간다면 더 학술업적의 稀少價値가 서 있을것 이다. 그는 후기졸업식에서 박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는 한 번 해보고 싶어.』

▼數年前의일 금치 못한다.

이었다. 湖南 地方에 가물이 들어 2월이 오기전에 극심하여 新雨는 슬프고도 아픈 祭가 한창이었다. 그러나 이번 가뭄은 지난 해와 달리 지난 겨울 눈도 없고 비도 없어 地方민가에서는 모두 걱정이 태산 같다. 이것은 물론 지난 겨울 洪水의 피해가 아우 農民들의 아우성 지만 점점 심각해 지고 있어 안된다는 사고방식 이었을까? 내년2월부터는 醫師 專門 士學位 授與制度가 폐지되고 박사학위취득을 해서는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해야하는 본 業體의 작된다. 金融業體의 入社試驗으로 금년의 入社試驗은 거의 큰난게되었다. 無休로 實施된 特 講受講에다 卒業班 生들에게는 暗黑的 노력이 있었던 卒業班들의 가슴을 눌러 착잡하기 그지없다. 마침 하루 한 번 겨울 스산한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이 하지만 前期도 아직 1학기를 겨울캠퍼스에서 3백여명씩이나 배출은 아닐것이다. 이때만 추석은 간다면 더 학술업적의 稀少價値가 서 있을것 이다. 그는 후기졸업식에서 박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는 한 번 해보고 싶어.』

新着圖書

英語音聲學

<梁東暉著, 汎韓書籍刊, 354P>

6章으로 나뉘어 저술되어 있는데, 1章은 總論으로 언어와 음성, 음성학, 발성기관, 音의 分類등이 있고 2章부터는 母音, 子音, 連音, 强勢, 音調등으로 나누어 저술하고 있다. <中央도서관 제공>

火曜칼럼

「讀書週間」有感

柳在燁

校門을 들어서서 오르면, 학생회관앞에 40계단을 讀書週間이라고 써 한안 표지가 보인다. 매년 이맘때가되면 거렐로 말미암아 이 표지판은 없이 나타나는 이 표지판은 학생회관뿐만 아니라, 교양학부앞과 대학본부, 그리고 도서관앞에서도 볼수있다.

가을은 독서기좋은 계절이라고한다. 그리고 저 韓愈의 詩「符讀書城南」을 모른 다해도 「燈火稍可親」의 귀절쯤은 누구나 알고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부터 가을이되면 등잔의 심지를돋우고 밝도록 글을읽고, 車胤과 孫康의 行績을 본받고자 노력한다.

현대는 기계문명이 극대화되고, 또 인간이 그속에 빠져 꼭, 조직화된 탁인지, 모두들 책을 가까이할수 없게된다. 금전이 만물의 가치기준이되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돈이 없는 비관정신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것이 진정한 학문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므로 가을이 오면 그것을 읽고 그것을 사색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다.

그러나 이것은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事物이 많다면 그것들은 同時에 크고 작고 해야만 할것이다. 實로 그것들은 크기가 없을만큼 작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無限히 없으면 그것은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事物의 크기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물은 無限이다. 아테네편의 「소크라테스」는 知識에 對한 思想에서 「인간이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는 罪犯이다. 그러므로 가장 重要한 惡의原因은 無知이다」고 했다. 그리고 「F·베이컨」의 「앎이 힘이다」란 말을이해할수있게되었다.

러셀 自身「善에 到達하기 爲해서는 지식을가져야하고 또 그리므로 善은 지식이다. 歷代 希臘思想의 特徵이 에 完全히 反對된다.」한것으로 보아 그가 「왜 그것은 存在하지 않는 것이냐」고 묻는 것이다. 哲學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그가 以前보다도 더 愚昧해져 보여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가 哲學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罪人들과 다를 바 없다. 조그마한 생각과 行動에도 哲學이 들어있어야 滿足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여 그의 미래적 民族國家들의 利用物로 轉落했다.

초기에는 민족적 결점으로 잔주되면 적상교 절점적으로 개인의 경할 으로 여겨지게되었고 죄를 범할수 있는 사람은 기독인 개개인이었다. 스콜라哲學時代로 접어들면 철학이 밀접하게교회와 연결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可知的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체의 본질은 인간에게는 알할것도 없고 神자신에게도 不可知한 것이다.

현대철학의 勃興은 문예부흥이다. 신에대한 결 신들린 교황세력이 너무 강력해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동시에 Idea의 변화를 조리있게 그리고 역사에 정확히 입각해서 철학자의 사상을 연결한 체계가 이루어졌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조금 안것장담이다. 다시 말해서 哲學的 見解가 成長하여온 背景을 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 자신이 東洋人으로서 몇가지 가장중요한 관점에서 서양의 哲學的 전통과 東洋의 理性的 思維와 어떻게 다른가를 이책을 통해 배우고 있다는 점이다.

<農林大學·農學科>

알림

금週 594호부터 고정筆 부터 現代까지의 Idea의 변화를 조리있게 그리고 역사에 정확히 입각해서 철학자의 사상을 연결한 체계가 이루어졌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조금 안것장담이다. 다시 말해서 哲學的 見解가 成長하여온 背景을 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 자신이 東洋人으로서 몇가지 가장중요한 관점에서 서양의 哲學的 전통과 東洋의 理性的 思維와 어떻게 다른가를 이책을 통해 배우고 있다는 점이다.

<農林大學·農學科>

▲柳在燁(國文·3) ▲馬基永(經濟·3) ▲陳水裕(哲學·3)

◇短篇小說◇

꼬

羅英玉 <3>

『그래,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굳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때 오랜 소년시절을 통해 세운 작전을 일시 변경했었어.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어. 사실 너무도 이질적인 것에서 억지로 동류항을 찾아 넣려고 했던 것부터 잘못이었어. 모든 것들이 깨끗거렸어. 나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혼자 석각이면서 학교 주위를 맴돌다가 하숙방으로 달팽이처럼 기어들어 가곤 했지. 나의 말은 그대로 스타트 라인에 붙어버렸던거야. 지금 나는 비둘기처럼 먹열의 클럽에 와있어. 너무도 많은 오차를 가지고. 그 오차를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아. 이번 한번만 네게 기회를 줘. 어떻게 돼도 좋아. 내 의지대로 해보고 싶어.』

『그렇지만 다시 고등학교 편부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어려워요.』

『알겠어. 너도 마찬가지야. 안이하게 살려고 하는 다른 여자들과 다를없어. 너는 내게 용기를 주지 않아. 너는 한 번도 내게 원해 본 적이 없었어. 나는 신(神)이 되고 싶었는데. 너는 그만 어느 것도 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나는 소화되지 못한 여자예요. 아무 것도 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두고 말았다. 한편 다 알고 있다는듯 조용히는 눈초리로 쳐다볼것 같기도 했다. 어느틀 나는 탑랑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물론 뒤기도 했지만 손바닥이 근적근적해질 정도로 더운 날씨는 아니었다. 나는 손바닥을 펴서 바지 영혼이에 문지르며 그동안내가 몰고 있었다는 것을 의식했다. 심통이 났다. 그가짓 책하나 빼들고 식은 땀까지 흘리고 있는 내가 지지리도 못남 늘 같았다. 실였다. 그럼 나를 나포전 용납할 수 없었다. (극복해라. 너는 그 꿈포를 찢 통겨고서야 너. 너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소심했어. 그것을 떨어버려.)

유혹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너무도 우렁찬 것이어서 거역할 수가없었다. 그러나 그 슬픈한 속삭임과는달리 나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리고뒤 통수에 부담을 주시하고있는 것 같아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슬그머니 주인의 얼굴을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이내 주인의 얼굴을 알수 있었다.

『왜 덤덤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요?』

그녀는 우스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작중작중을 하는게 아니라 나를 구경하고 있었군. 맞춰봐, 왜 손을 넣고있는지.』

나는 도리어 장난기서린 말투로반어 하였다.

『아유! 자기가 무슨양반인가? 남들은 다 이렇게 먼저 만져보는데 삼복더위에 주머니에 손을넣고 얼쩡거리니까 우습잖아요.』

그녀는 도리어 장난기서린 말투로 응수했다. 나는 그녀의 장난인지 알수없는 투정을 부렸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왜 주머니에 손을 넣고있는지 의식했다.

『그래? 이상한가? 이유가 있지. 알아맞춰봐.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닌것 같고…』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신없이 대답했다.

『그래, 그것은 아니야.』

『그럼 뭘까? 혹시 물건들이 많아서 그러는것 아니에요? 옥, 이틀테면 아랫주머니